

‘제로금리’ 마감에 11월 은행예금 2배 늘었다

광주·전남 11월 신규예금 9167억원...지역가계대출 증가세 완화 2금융권 가계대출 96% 달해...새마을금고 신규대출 123% 증가

국내 기준금리가 1.0%로 오르며 사실상 ‘제로금리’를 끝냈던 지난해 11월, 지역민들은 예금은 행 예금을 2배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 압박 속에서 지역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된 가운데, 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전체의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1년 11월 중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주·전남 예금취급기관 신규 수신은 1조5403억원으로, 전달(1조1668억원)보다 32.0%(3735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을 나뉘보면, 예금은행 신규

수신액은 4240억원에서 9167억원으로 2.2배(116.2%) 증가했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수신액은 7428억원에서 6236억원으로, 16.0%(-1192억원)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전남 신규 수신액이 가장 많았던 달은 8월(2조2641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상(0.25%포인트)한 때가 지난 8월26일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중은행부터 대출 여제가 시작되면서 11월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에서의 11월 신규 가계대출 금액은 광주 2219억원·전남 1235억원 등 3454억원으로, 전달(3010억원)보

다 14.8%(444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10월 1082억원에서 11월 2219억원으로, 105.1%(1137억원)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1928억원에서 1235억원으로, 35.9%(-693억원) 감소했다.

광주·전남 신규 가계대출 총액이 전달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난 7월 255.5%(2410억원→8567억원)에 달했던 증가율보다는 둔화됐다.

문제는 시중은행 자금줄이 막히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 점이다.

11월 신규 가계대출(3454억원)의 95.7%인 3307억원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이뤄졌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1909억원에서 11월 3307억원으로, 73.2%(1398억원) 급증했다.

반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101억원에서 147억원으로, 86.6%(-954억원)이나 줄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였다.

광주·전남지역 11월 새마을금고 신규 가계대출은 1942억원으로, 전달(871억원)의 2.2배(123.0%) 수준이었다.

광주 새마을금고에서의 가계대출은 416억원에서 902억원으로 2.2배 뛰었고, 전남 새마을금고도 455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2.3배 급증했다.

상호금융 11월 가계대출은 423억원으로, 전달(263억원) 보다 60.8%(160억원) 증가했고, 신한도 628억원에서 923억원으로, 47.0%(295억원) 늘었다. 상호저축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10억원 줄었다.

노민재 한은 광주전남본부 조사역은 “지난해 11월 예금은행 수신의 경우 보통예금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비은행권 수신은 상호금융과 신한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모두 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NH매일적금’ 횡수 따라 0.9%P 금리우대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매월 1000원 이상 적금을 들면 0.9%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하는 상호금융 ‘NH매일적금’을 내놓았다.

박서홍 전남본부장 등은 20일 해남 계곡농협을 찾아 ‘NH매일적금’ 가입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적금은 매월 1000원 이상 10만원 이내(원 단위)로, 계좌당 매달 30만원까지 자유적립할 수 있다. 개인 1인당 3개 계좌까지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단위 가입 가능하다. 매일 자동이체 또는 직접 적립하게 된다.

비대면 전유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립횟수 등에 따라 최고 0.9%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 상품은 일상에서 소소한 지출비용을 매일 규칙적으로 모아 저축 습관을 들이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기농 프리미엄 막걸리 맛보세요 20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해남 해장막걸리가 새롭게 내놓은 '해장블루 15도'를 선보이고 있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은 이 제품은 30일 이상 저온 숙성한 강진·해남산 유기농 찹쌀로 만들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KJ카드, 설맞이 ‘쓰리 Go’ 이벤트

쿠폰·무이자 할부 등 다양

광주은행이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설맞이 경품 행사를 벌인다.

행사명은 ‘온 가족이 쓰리 Go!’이다. ▲오프라인 업종 대상 모바일쿠폰 추첨 ▲온라인 업종 모바일 쿠폰 추첨 ▲무이자 할부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행사기간 동안 백화점·대형마트·주유소·음식점에서 합산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GS칼텍스와 이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총 200명에게는 GS칼텍스와 이마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 2만원권이 주어진다.

약국·안경·자동차보험사·자동차정비·하나로

마트 등 생활 5대 밀착형 업종에서는 2-3개월 무이자할부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여행·백화점·대형마트(2-5개월), 온라인몰(2-7개월), 가전·가구(2-3개월) 등도 무이자 할부 결제 대상이다.

해당 행사에는 홈페이지(kjbank.com)와 스마트폰 앱, 모바일웹캠,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유로운 이동과 만남이 어려운 설 명절이지만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금융혜택을 더해 드리고자 설맞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2022년에도 고객이 금융생활 가장 가까이에서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광주본부, 지난해 ESG 실천기업에 1000억원 금융지원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는 지난 한 해 ESG 경영 실천기업 대상으로 약 1000억원 상당 금융지원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ESG 경영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ESG 경영 다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농협은행 사무소장 30명이 참석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NH농식품그린성장론, NH친환경기업우대론 등 ESG특화 금융상품을 통해 1000억원 금융지원을 벌였다.

중기통장을 발급하지 않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배출을 줄인 고객에게는 예·적금 금리와 외화 환율을 우대했다.

또 지난해 관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농협 광주지역본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

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 범농협 차원으로 NH기후행동 캠페인을 벌이며 잔반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석찬 광주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ESG특화 금융상품 판매, 사회공헌활동 및 소비자중심 경영 활동 등 다양한 ESG 경영 실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농협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사우디와 탄소중립·수소경제 달성 협약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서 체결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전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에서 수소-암모니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한 정승일 한전 사장과 사우디 아람코, 사우디 전력공사, 아쿠아파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협약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블루 수소가 블루 암모니아 개발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수행에 관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50년 기준 수소가 암모

니아가 각각 최대 1300만톤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세계적 수준 연구개발(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는 공동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신기술 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정 사장은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사장과 블루 수소-암모니아의 생산과 공급 관련 잠재적 협업 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사장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아람코의 도전과 적극적인 노력에 공감하며, 서로가 탄소중립이라는 긴 여정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사장은 사우디전력공사, 아쿠아파워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

<h1>경매교육 [특수전문반]</h1>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h1>010-6670-9800</h1>			